

2010년 8월 농식품 동남아시아시장 동향

2010. 9



식품마케팅처 식품수출정보팀

- 목 차 -

- 현지 시장 포커스 -----	3
- 농산물 수출입 동향-----	7
- 농식품 관련 동향-----	9
- 경제동향-----	9

해외시장동향	동남아	싱가포르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싱가포르)

- 러시아의 산불의 확산으로 밀(wheat)수출국가인 러시아가 8월 5일 전격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밀 전면 수출 금지 발표에 대해 싱가포르는 자국의 상황에 대해 밀수급상황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AVA)는 2009년에 수입한 밀 18만톤은 50% 이상을 호주, 그리고 나머지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수입하였다고 발표. 현재 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산 수입완구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과동으로 이슈가 되면서, 농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식품·동물·식물의 수입허가 및 검역을 담당하는 AVA에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여 식품업자들을 긴장시켰음
- AVA는, 중국 지린(Jilin)시와의 식량구역 합작사업과 관련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Food Safety Excellence Logo (마크)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임

(출처 : Strait Times, AVA, SFMA)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무역개발공사(MaTrade) 주관으로 7월 21일 ~ 29일에 걸쳐 남미의 브라질 및 칠레에 파견된 무역촉진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식품업체들이 MYR 3.58백만 (약 U\$ 1.13백만)의 현장주문과 MYR 19.2백만 (약 U\$ 6백만)의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발표. 상파울로와 산티아고에서 가진 12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남미 소비자들이 아시아의 식품 및 재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기회였음
- 팜유 재료 및 코코아 제품 이외에, 말레이시아의 과자류, 건강음료, 냉동식품, 소스류 및 스낵류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음

(출처 : Bernama)

(태국)

- 태국 무역대표부 무역사절단이 7월 20일~29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및 파나마를 방문하여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을 개최하는 브라질 시장 확대를 목표로, 파나마는 중남미 시장 공략의 물류기지로서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태국의 식품문화를 소개하여 수출품목에 식품류를 추가하려고 목표하고 있음. 2009년 U\$ 5.4백만에 머무른 태국 식품류 수출의 확대를 위해, 중남미 진출의 물류기지로서의, 파나마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관하여 협의하였음
- 베트남의 적극적인 행보로 쌀 수출 1위국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태국은, 쌀 수출 2위국인 베트남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위해 8월 23일~27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가짐. 태국은 쌀 국제시세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OPEC과 유사한 쌀-카르텔의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태국은 860만톤의 쌀을 수출한 반면, 베트남은 600만톤의 쌀을 수출하였지만, 2015년경 태국을 추월하여 쌀 수출 1위국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물류비 (베트남-강, 태국-트럭), 인건비, 2009년의 2차례에 걸친 베트남동(Dong)화의 평가절하 등의 호재로 태국 쌀 대비 평균가격 격차가 2008년의 U\$ 68.-/톤에서 2009년에는 U\$ 128.-/톤으로 점차 벌어지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증가하는 쌀 재고의 처분을 위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태국은 500만톤을 상회하고 있는 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정부간 거래를 통하여 재고의 50%를 소진하려는 계획으로 부총리 및 통상부장관 등이 해당국가들을 방문하였지만, 베트남에 상응하는 가격에 맞추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출처: Bangkok Post, Intellasia, Reuters, VOV, Business Week 종합)

(인도네시아)

- 8월 11일 시작된 라마단(Ramadan, 회교 금식기간, 2010년 8월 11일~9월 9일)이 종료된 후의 레바란(Lebaran, 회교의 사죄 및 먹거리 축제기간)에 대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레바란(Lebaran) 기간의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40만톤의 쌀을 방출하였고 5,000톤의 냉동소고기를 수입 비축하였다고 발표

- 9개 식품회사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굴지의 식품가공업체인 가루다푸드(PT Garudafood Putri Jaya)는 올해 3/4분기 예정된 약 U\$ 1.1억의 기업공개(IPO)를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 함. 지분 15%에 대한 IPO를 계획하였던 가루다푸드는 지주회사인 투둥(Tudung Group)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계획하는 중국, 한국, 홍콩 등의 10여개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IPO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이 2009년 9월부터 자국산 클로브향(kretek) 담배에 대하여 취한 수입금지 조치는 “차별적”이라며, 6월 26일 미국을 WTO 분쟁조정국에 제소하여 그 귀추가 주목 됨. 비중이 낮은 담배수출을 문제시 삼은 것은, 현재 미국이 대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 자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세제 및 조세개정 등을 압박하는 것에 따른 거래협상을 노리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담배 수출>

(단위 U\$ 1,000.-)

	2007년	2008년	2009년
전 체	290,955	357,781	410,490
미 국 (비중)	11,165 (3.8%)	9,704 (2.7%)	8,338 * (2.0%)

(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BPS))

주 : * : 2009년 9월부터 수출 중단

(출처 : Jakarta Post, Antara, Indonesia Today, Asia Pulse, Tempo Interactive, Reuters 종합)

(필리핀)

- 필리핀 현 대통령인 아키노 3세 가문이 소유한 설탕농장의 토지몰수 및 농가분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하여, 아키노측이 1만여 소작농가에게 지분 보유방식의 조정안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은 8월 18일 이를 수락하였음. 대법원의 결정으로, 법률적으로 아키노측은 소작농들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되며, 국가는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아키노측에 보상해주어야 함
- 신임 농림부 장관(Proceso Alcala 장관)은, 지난 수년간 국가식량청 (NFA)의 쌀 도입에서 많은 비효율과 부정의 의혹이 있다며, 계약국가들에게 쌀 선적 중단 및 법무부에 전임자들에 대한 부정여부 수사를 각기 요청하였음. 지난 수년간 쌀이 과도하게 수입되어 국가식량청 누적부채는 U\$ 38억에 이르고, 보관창고에서는 쌀이 썩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 코코넛 위원회는 코코넛 관련제품의 상반기 수출이 물량은 전년동기 (54만톤) 대비 128% 증가한 123만톤, 금액은 전년동기 (U\$ 3.5억) 대비 208% 증가한 U\$ 7.3억으로 필리핀 코코넛 수출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고 발표. 코코넛유가 전년동기 대비 물량은 158% 증가한 71.3만톤,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83% 증가한 U\$ 1.98억으로 2010년 코코넛 관련제품의 전체 수출금액은 U\$ 10억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출처 : Daily Inquirer, AFP, Malaya 종합)

(베트남)

- 필리핀 식량청 (NFA)의 쌀 계약물량 중 미선적분에 대한 선적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베트남 식품협회는 2009년 계약물량 160만톤 중 대부분이 선적완료 되었다고 밝힘. 베트남이 7월말 현재 필리핀 이외에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물량은 620만톤에 이르고 있어 당초 목표인 600만톤을 상회하였음. 7월말 현재 물량 410만톤, 금액 U\$ 20.1억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2.5%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3.4% 증가하였다고 밝힘. 여기에 중국과의 접경에서 이루어지는 현장매도물량도 60만톤을 넘어섰으며 ; 가뭄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에는 8월 13일 초도물량인 22만톤이 선적되며, 추가적으로 18만톤의 계약을 확보하여, 올해 베트남은 7백만톤의 수출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베트남 후추 협회 (VPA)는 상반기에 미국 및 독일의 급속한 수요증가로 후추의 수출이 물량 7만톤, 금액 U\$2.2억을 달성하였다고 발표. 상반기에 미국은 물량 8.3천톤, 금액 U\$ 2.7천만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물량 91.3%, 금액 21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독일은 물량 8.2천톤, 금액 U\$ 2.6천만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물량 91%, 금액 250%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베트남의 후추 생산량 증가로, 베트남이 후추 세계 1위 수출국가로 등장하자, 후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도의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인도계 향신료 업체들은 베트남에 3개의 공장을 포함한 9개의 사무소를 설립하였음. 베트남후추협회(VPA)는 후추의 위상강화를 위해 후추산업에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상표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 베트남 농업농촌진흥부 (MARD)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인 베트남이 과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적자에 일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 베트남이 상반기 현재 농산물 U\$ 63.8억을 수입하여, 전년동기 대비 36.3%의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자국산 농산물에 비해 수입산이 깨끗하게 포장되고, 쉽게 상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과로 ; 농가들의 품질 및 포장 개선 노력과, 소비자들의 베트남

의 경제를 위해 자국산 상품을 애용할 것을 호소함

(출처 : VNN, VOV, Intellasia, VNA, Economic Times 종합)

2. 농산물 수출입 동향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7월 한국산 농산물 수입은 금액 U\$ 437만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45.9% 감소. 민속명절 (귀신의 달, 8월 10~9월 7일) 및 제1회 청소년올림픽 (싱가포르, 8월 14~26일) 등을 맞이하여 싱가포르가 5, 6월에 많은 물량을 수입해두었기 때문임. 7월의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그동안의 홍보의 효과로 버섯류는 345%(느타리, 팡이버섯)의 증가(6월 30천불, 7월 135천불)

< 한국의 대 싱가포르 6월/ 07월 농산물 수출 현황 >

(단위: USD)

	2010년 6월	2010년 7월	증감(%)
농산물	8,084,634	4,373,888	- 45.9
전 분	34,801	121,111	248.8
과실류	212,370	223,616	5.3
과즙음료	158,219	154,860	- 2.1
채소류	181,141	125,582	- 30.7
소오스류	90,516	73,778	- 18.5
커피류	1,083,344	426,704	- 60.6
필터담배	2,111,327	31,294	- 98.5
인삼류	62,755	41,070	- 34.6
주 류	565,049	252,572	- 55.3
음 료	110,052	71,132	- 35.4
과자류	182,563	257,800	41.2
면 류	187,783	222,437	18.5
국 수	44,213	72,523	64.0
라 면	73,616	78,952	7.3

(출처: kati.net)

(싱가포르 이외 동남아시아 국가)

- 7월 한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복숭아 (575%), 기타과실류 (339%), 채소류 (91%), 된장 (623%), 음료 (100%) 등 증가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26.9% 증가; 베트남은 채소류 (62%), 기타식물성유지 (74%), 인삼차 (98%), 홍삼정 (787%), 음료 (116%)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11.4%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과실류 (237%), 채소류 (180%), 혼합조미료 (1,127%) 등이 증가를 보이며, 전월대비 총금액이 73.0%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태국은 채소류 (7,529%), 채소종자 (22,587%), 식물성유지 (2,737%), 소오스류 (1,611%) 등이 급격한 시장을 보이면서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199% 증가하였음. 필리핀은 전분 (-25%), 연초류 (-53%), 소오스류 (-58%), 버섯류 (-100%) 등이 감소하여, 과실 (+5%), 채소류 (+105%), 고추 (+108%) 등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18.7% 감소함
- 7월 총금액별로 태국이 급격한 신장세로 U\$ 2,672만을 기록하였고, 베트남은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면서 U\$ 1,415만을 기록. 인도네시아는 종교풍속의 영향으로 증가 ; 싱가포르는 민속풍속 및 국제행사의 영향으로 감소 ; 필리핀은 정치상황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
- 태국은 3~5월 소요 사태의 주축인 붉은셔츠(Red-Shirts)들이 주로 농민계층이었던 점과 갈수기 등을 겪었던 점 등의 영향으로 가을수확기 이전까지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식품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며 ; 인도네시아는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난후의 레바란 먹거리축제를 위해 수입량을 증대시켰으며 ; 필리핀은 새로 취임한 아키노3세 행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농경정책 미비 및 무분별한 수입 등을 비난하면서 수입추세가 감소되고 있음

< 한국산 식품 수입 동향 >

(단위: USD)

	2010년 06월 (USD)	2010년 07월 (USD)	증감율 (%)
말레이시아	4,327,020	5,489,938	26.9
베트남	12,696,039	14,148,473	11.4
싱가포르	8,084,634	4,373,888	- 45.9
인도네시아	6,778,435	11,728,177	73.0
태국	8,921,215	26,719,332	199.5
필리핀	9,315,119	7,570,826	- 18.7

(출처: kati.net)

3. 농식품 관련 동향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계 월마(Wilmar)그룹은 7월 5일 호주 최대(세계2위)의 설탕가공업체인 Sucrogen사를 인수하였음. 향후 세계 설탕 시장에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세계 최대의 팜유 그룹인 월마그룹은 회장의 삼촌인 말레이시아의 “설탕왕” Robert Kuok 회장이 작년말 말레이시아 내 설탕부문을 전량 말레이시아 정부에 매각하면서, 자본과 노하우가 월마에 이전한 것으로 파악됨. 월마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종합 사탕수수 농장의 개발에 관심을 보여 투자를 진행중임

나. 미국의 화이저(Pfizer)사는 지속되고 있는 중국산 분유제품에 대한 우려에 편승하여, 중국, 아세안, 서남아시아 등의 수요증가를 위해 U\$ 3.7억을 투자하여 증축 중인 싱가포르 공장에 추가로 U\$ 1억을 투자하여 추가 증축을 통해 총면적 91,963m²의 세계 최대의 이유식 공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추가 증축을 통하여, 공장의 생산능력은 50% 증가하게 되며, 생산되는 제품은 싱가포르 이외에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전함

(출처 : Business Times, Wall Street Journal, Reuters, PR Newswire, Bloomberg, Pfizer.com 종합)

(말레이시아)

가. 2009년 GNP 규모 U\$ 1,577억으로 세계 29위, 아세안 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부가세(VAT/GST)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열띤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아직까지 부가세(VAT/GST) 제도가 없는 소수 국가에 속하는 말레이시아는 2007년에도 부가세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여론에 밀려 불발되었었음.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적자를 인식 인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여 서민들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의회 및 기업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부가세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2012년 시행의 중재안을 내놓고 있음

나. 말레이시아의 “설탕왕”으로 불리웠던 피피비(PPB Group)의 로버트 쿡(Robert Kouk) 회장은 작년 10월 말레이시아내 설탕사업부문을(U\$ 8.2억)에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인 펠다(Felda)에 매각하였고, 최근 7월 조카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싱가포르 월마그룹의 호주 설탕회사인 수크로젠(Sucrogen)사의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다. 말레이시아 코코아 위원회 (LKM)은 사바(Sabah)주에서의 코코아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참여 농가에 1인당 50그루의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이는 1) 초콜릿의 세계수요 증가, 2) 말레이시아가 연간 35만톤의 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은 연간 1.8만톤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시행사업임

(출처 : The Star, Business Times, Bernama 종합)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쌀 및 옥수수에 대한 2014년의 자급 목표를 발표함. 쌀은 연평균 3.22%, 옥수수는 연평균 10.02%의 생산증대를 통하여, 2014년에 쌀은 75.7백만톤, 옥수수는 17.66백만톤의 생산량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쌀은 2008년~201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49%의 생산증대를 기록하여 2009년말 재고는 389.5만톤, 2010년 생산은 6,515만톤을 기록하였다고 밝힘

나. 인도네시아 커피수출협회 (AEKI)는, 커피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 목표인 물량 32.5만톤, 금액 U\$ 6.5억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힘. 6월말 현재 커피수출이 물량 20만톤, 금액 U\$ 3.5억을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커피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로부스타(robusta)종의 시장확대를 위해, 상하이 엑스포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힘

다. 미국계 농산물 기업인 번지사(Bunge Ltd)가, 인도, 중국 등에서의 팜유 수요증가에 호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팜유 농장 부지를 물색 중임. 팜유산업진출을 위해 관련 국가들에 부지의 추천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번지사는 2008년 현재 자산 U\$ 202.3억, 매출 U\$ 525.7억을 기록한 세계 1위의 유지종자(oilseed)가공업체, 세계 1위의 대두 가공업체, 세계 1위의 식용유업체, 남미 1위의 비료업체로, 경쟁사는 카길(Cargill) 및 아처 대니얼스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 등 임

(출처 : Antara, Reuters 종합)

(필리핀)

- 가.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네슬레-필리핀사의 인도네시아로의 회사 이전설 관련하여 네슬레 이전계획은 없다고 밝힘. 대신 확충 및 신규시설의 건립계획이 있다고 밝힘. 네슬레는 필리핀에 4개의 생산시설과 아세안지역 물류기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약 U\$ 2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나. 필리핀은 쌀 생산량 부족으로 해마다 수요의 약 10%에 달하는 150 ~200만톤의 쌀을 수입함. 신임 농림부장관은, 2010년 생산목표량 17.4백만톤에서 2013년에는 20% 이상 증가한 목표량 21.6백만톤의 쌀 생산증대를 통하여, 2013년까지 쌀의 자급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다. 필리핀 농림부는 2013년 쌀 자급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음.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교배종 쌀 “Tipid Abono”의 소출량 50% 확대 효과를 기록한 유기농비료(퇴비, 쌀겨, 슬러리, 피트, 해초, 브라썬, 구아노)의 사용확대를 추진중
- 라. 특히 MS 11 (Maligaya Special 11) 신품종에 기대를 걸고 있음 : MS 11은 필리핀에 소재한 국제 쌀 연구소 (IRRI) 및 한국의 농촌진흥청 (RDA) 등이 2006년부터 공동개발한 신품종임. 고품질 자포니카 쌀로 이면서, 병충해에 강하고, 73cm의 짧은 대를 가지고 있어 태풍피해가 많은 필리핀에 적합한 품종임. 한국농촌진흥청의 김재수 청장은 올해 4월의 IRRI 50주년행사에 신품종의 전달식을 가진바 있음

(출처 : Manila Bulletin, Malaya, Reuters 종합)

(태국)

- 가. 태국의 오소츠파(Osotspa)사가, 신규 냉동제품의 세계진출계획을 발표함. 생활용품 및 기능성음료가 주 사업분야인 회사로 신규 냉동제품 브랜드는 “탈리셔스 (Thailicious)”임. 12년간 세계 60개국에 수출한 경험을 살려, 세계 10개국에 대리점망을 구축하여 2~3년내 U\$ 6~8천만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나. 일본 니치리식품(Nichirei Foods)과 태국 GFPT사의 합작사인 GFPT Nichirei

(GFN)이 태국정부로부터 “육계 도축 및 가공 허가”를 취득 도축을 시작. GFPT에 냉동 및 가공 닭고기를 납품해온 GFN은, 이번 도축허가 취득으로 상당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GFPT 또한 상당한 이익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다. 일본 최대의 조미료회사인 아지노모토(Ajinomoto)사가 태국에 운영 중인 4개 공장 중, 감땡 펫(Kamphaeng Phet)공장 증축(약 U\$ 1.1억 규모)을 발표. 국내 및 수출 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생산제품의 90%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태국 정부의 신속한 허가로, 공장증축도 신속하게 전개가 되어 증축 1단계는 올해 11월에, 증축 2단계는 2013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 임

(출처 : Bangkok Post)

(베트남)

가.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는 설탕 15만톤의 긴급수입에 대한 재가를 정부에 요청함. 베트남내 설탕정제공장 및 창고의 재고물량이 20.5만톤이나, 대부분 사전판매된 물량으로, 베트남은 추석과 12월을 앞두고 설탕이 부족한 상황

나. 베트남 정부는 질산계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추가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베트남은 연간 920만톤의 비료수요가 있으나, 국내 생산량은 60%대로 해마다 300만톤 이상의 비료를 수입하고 있으나 질산계비료는 공급과잉이고 나머지 비료는 부족한 상황임

<베트남의 비료 수요 및 생산 현황>

비 료 종 류	2010년		건설중 (2개 공장)	완공후 생산현황
	수 요	생 산		
urea (요소)	2,000,000	945,500	-	945,500
SA (황산계)	700,000	0	-	0
phosphate (인산계)	1,600,000	1,700,000	-	1,700,000
NPK (질산계)	3,300,000	2,700,000	740,000	3,440,000
DAP (인)	750,000	260,000	-	260,000
potassium (칼륨)	850,000	0	-	0
합 계	9,200,000	5,605,500	-	6,345,500

(출처 : 베트남 GSO)